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6월 23일(금)
(윤력 5월 6일)
Пятница
23 июня 2023 г.
№ 24 (1204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유즈노사할린스크, '추모의 촛불' 행사 개최

▲ 러시아 추모와 애도의 날, 6월 22일, 04:00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영예 광장에서 위대한 조국 전쟁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한 "추모의 촛불"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 사회단체, 법 집행 기관, 당국 대표 및 일반 시민 등 약 100명이 참여했다.

2013년부터 이 행사를 개최해온 청년 주도 센터의 올렉 고르도바노프 센터장은 "전통에 따라 묵념으로 행사를 시작한 후 참가자들은 영원한 불꽃 근처 받침대에 200개가 넘는 전구로 "우리는 기억합니다"는 문구를 만들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예식 기자 촬영)

친애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6월 24일은 러시아에서 청년의 날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미래의 사할린과 쿠릴열도, 나아가 러시아 전체를 정의할 세대들을 위한 날입니다.

이 지역의 젊은이들은 지식과 성공에 대한 갈망, 애국심, 조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조국을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사할린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주 정부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젊은이들이 전문직, 창의성 또는 스포츠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적절한 급여를 받는 직업을 찾고, 사업을 시작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요가 많은 직종에 대한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를 양성할 사할린기술 캠퍼스 건설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대규모 주택 및 사회 시설 건설이 진행 중이며 대규모 사회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젊은이 여러분이 사업에서 성공하고 건강, 행복, 번영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즐거운 기념일 되세요!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를 위한 농업 및 어업 투자 프로젝트 개발 예정

사할린 주는 첨단 어류 가공, 양식업, 채소 종자 재배 및 비료 생산을 개발할 것이다. 유망 투자 프로젝트 선정은 티미라제프 명칭 농업 아카데미에서 진행된 "농업바이오테크 2035" 세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정부 보도부에서 전했다.

200명 이상의 전문가가 "농업바이오테크 2035"의 전문가 세션에 참가하는데 전문가로는 과학연구소, 농업 전문가, 부문별 러시아 관련 부처, 극동 및 북극 개발 공사, 비즈니스 커뮤니티 및 은행 부문의 대표들이 포함됐다. 포럼 참가자들은 사할린의 농업을 위한 주제별 투자 프로젝트를 개발했다. 10개 팀은 각각 다른 방식을 선보였다.

"우리는 지역에 있는 농업 및 유기 폐기물로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술을 제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효과를 배로 낼 수 있습니다. 기술이 이 지역에 들어오면 추가 일자리가 창출되고, 제품이 국내 시장과 수출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지역 예산에 추가 수입이 될 것입니다."라고 "로스나노" 공사 그룹의 대표 이반 오지기히인 말했다.

이 밖에도 러시아 인근 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감자를 포함한 종자 생산,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 공급할 화훼 재배, 가리비, 해삼, 성게 양식 및 가공 시설 등 수산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쿠릴열도 남부에 계획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고려되고 있다. 또한 도서 지역에 더 발전된 어류 가공 시설을 도입할 계획도 있다.

단신

쿠릴열도에서 가장 큰 학교, 9월 1일 개교 예정

이투루프섬에 학교 건물 공사가 이미 완료되었다. 이 교육 시설은 4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현대적인 컴퓨터 과학, 물리, 화학 및 생물학 교실, 기술 교실 및 언어 실험실을 갖추고 있다. 초등학생을 위해 오후방, 침실, 놀이방, 영어 수업을 위한 컴퓨터실을 갖춘 별도의 블록도 만들어졌다.

3층짜리 학교 건물은 쿠릴스크 중심부인 기드로스트로예프스카야 거리에 위치해 있다. 교육 시설의 면적은 3,500 평방 미터가 넘는다. 현재 부지 내 조경공사가 진행 중이다. 곧 이 학교에는 책상, 의자, 찬장, 매점 장비 및 가전제품 등 학습에 필요한 모든 것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 교육 시설은 연방 목표 프로그램인 "쿠릴열도의 사회 및 경제 개발" 이행의 일환으로 지어졌다.

북부 쿠릴열도에서 송어 수확 시작

세웨로쿠릴스크 구역 어부들이 6월 18일부터 송어기를 시작했다고 사할린 주 수산부 보도부에서 밝혔다.

상업적 어업을 위한 섬 지역의 회유성 어류 어획량 규제 위원회는 북부 쿠릴열도의 송어, 연어, 홍연어(네르카), 은연어(키주츠)의 생산량을 각각 3,963.6톤, 1,655톤, 1,399.1톤 및 398.2톤으로 설정했다.

6월 20일 기준 어획량은 송어 68톤, 연어 13톤, 홍연어 2톤, 은연어 0.5톤이다.

송어, 연어, 홍연어, 은연어에 대한 상업적 목적의 어획은 8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러시아, 기회의 땅" 행사 개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학습 탐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생과 대학생들이 대화형 교육 플랫폼에 참여하는 대통령 플랫폼 행사 "러시아, 기회의 땅"이 열렸다. 이 행사는 사할린 주 정부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 지도자 "엘브루스" 클럽과 "러시아, 기회의 땅" 플랫폼 지역 개발 부서가 주최했다.

"러시아, 기회의 땅" 플랫폼 행사는 젊은이들이 전문가들과 이야기하고 대통령 플랫폼의 대화와 프로젝트에서 제시된 수많은 발전 궤적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할린 주 민속 창작 센터에서 프로젝트 발표로 시작되었다.

사할린은 대통령 플랫폼 "러시아, 기회의 땅"의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는 유망 지역 중 하나이다. 플랫폼 운영 5년 동안 사할린 주에서 4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프로젝트, 경연대회, 올림피아드에 참여했으며, 그 중 445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고 115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새고려신문

2023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1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6월 24일은 청년의 날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코르사코브 한인회의 젊은이들

매해 6월 27일은 러시아에서 '청년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푸틴 대통령령으로 이 날을 6월의 마지막 토요일에 기념하게 되어, 6월24일을 청년의 날로 기념한다.

필자는 청년의 날을 앞두고 신문 지상에 누구를 어떻게 소개할지 고심 끝에 코르사코브지역 한인디아스포라협회의 청년부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다.

올 4월 코르사코브한인회에 다녀왔을 때 재구성된 협회의 새 임원 몇 분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 김 올리아와 김영근(김 올레그) 운영위원도 그들 중 하나였다. 알고 보니 김 올리아 위원은 홍보담당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김 올레그 위원은 주로 청소년 담당을 맡고 있었다.

«저는 뜻밖에도 청년부 리더가 되었습니다. 전통을 보존하고 우리 협회가 여러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회 운영위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떨 땐 새 아이들이 찾아오면 이미 친구가 되어 함께 잘 어울리는 팀에 합류하는 것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하나로 잘 묶는 데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이들이 수업에 올 때나, 공연할 때, 행사 참여할 때 함께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인지 운영위 위원들이 저에게 청소년 업무를 맡아 준 것 같아요.»라고 김영근 위원이 말했다.

40세의 '인고스트라흐'보험회사 코르사코브 지점장인 김영근 씨는 책임감이 높은 분으로 잘 알려져 있어 이 활동을 맡을 수 있지 않았나 싶다. 청년사업에 부문에서는 적극적으로 21세의 김창수(일리아) 젊은이가 도와주고



있고 그 외 스포츠도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대학을 마치는 일리아는 방학 때마다 자주 찾아왔고, 졸업 후 코르사코브에 돌아와 취직할 예정이라 한인회 일도 잊지 않을 것이다.

차세대에 관한 사업은 코르사코브한인디아스포라 협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이 블라디미르 엔주노비츠 회장을 비롯해 김 올리아, 나짐코 사니토, 오점순 등 임원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협회 측에 따르면 작년 7월 재활성화를 시작한 단체 활동에 현재 약 25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단체가 운영하는 한글학교, K-팝댄스 과정, 무용, 보컬 교실, 사물놀이 교실 등의 수업에 참여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공연, 발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가 하는 거의 모든 행사에 참가하는데, 예를 들어, '한국을 맛보아라'축제, 사할린동포추념탑 청소, 광복절 행사, 발표 공연, 아트아르바트 행사, 나



무심기, 새 모이통 만들기,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한다.

무엇보다 한인회를 찾아온 어린이와 청년들은 한민족문화에 대한 호기심도 만족시키고 자기끼리 소통이 잘 되며 미래를 보는 눈이 밝은 것 같다. 지난 번 코르사코브 한인회를 찾았을 때 김 올레그 위원과 김 올리아 위원이 한 남자 고등학생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는 여기(한인회 사무실)에 반년 전에 처음 왔을 땐 모자를 꼭 눌러쓰고 맨 구석에 앉아 있기만 했어요. 엄마가 다니라고 해서 오긴 했는데 아무 관심도 없는 것 같았죠. 지금은 그때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케이팝 댄스를 얼마나 잘 추는데요! 그리고 리더십도 강해요. 말도 잘하고 인사성도 있고. 지금 다른 아이들이 그에게 이 곳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본대요. 그 학생이 이렇게 변화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라고들 했다.

이곳 분위기와 환경, 마음이 열려 있는 사

람들이 이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청년들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좋은 선배가 되어주고 잘 보살피며 서로 한 식구가 되어가고 있다.

«팀에서 일하는 것이 좋은 결과 외에 기쁨, 만족감 그리고 좋은 추억을 안겨줍니다.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정말 유익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행사 준비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알리고 가르쳐주고 싶습니다.»라고 학교 졸업생인 박윤이 학생은 말한다.

한인회 임원들은 '이 사업에서 가장 재미있고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활동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단체는 항상 젊고 미래가 보인다.

(배순신 기자)

(사진: 코르사코브 지역 한인협회 제공)

이 모 저 모

사할린 자원봉사자들, 특별 군사 작전 참가자들을 위해 건조보르쉬 키트 준비

'사할린 사람들을 위해' 팀의 자원봉사자들이 특별군사작전의 군인들을 위해 건조보르쉬 키트를 준비했다. 이것은 러시아 방위군의 보도부에서 전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기업가, 젊은 군인, 학생들이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봉사자들은 보르쉬 재료를 삶아 잘게 썰어 건조한다. 그 후 모든 것을 함께 섞고 소금과 후추를 넣는다. 건조보르쉬 키트에는 말린 빵과 마요네즈도 포함되어 있다. 키트를 받은 군인들은 보르쉬를 만들 때 뜨거운 물만 넣으면 된다.

약 3,000개의 키트를 동부 군사 지구의 군인들과 특수 군사 작전 지역의 사할린 군인들에게 곧 보낼 것이다.

Volонтеры на Сахалине приготовили сухие борщи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Волонтеры команды «Сахалин за наших» приготовили наборы сублимированных борщей для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на СВО.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ВВО МО РФ.

В работе добровольцам помогают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юнармейцы и школьники. Ингредиенты варят, нарезают и отправляют на сушку. После этого все смешивают, добавляют соль и перец. В набор входят также сухарики и майонез. Для приготовления борща бойцу понадобится только горячая вод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около трех тысяч сублимированных наборов будет отправлено военнослужащим ВВО и сахалинским добровольцам в зону проведения СВО.

사할린, 안드레이 루블료브 박물관 성화 컬렉션 전시회 개막

사할린 주 미술관에서 안드레이 루블료브 명칭박물관과 사할린 주 미술관 소장품으로 구성된 '16~20세기 초 러시아 성지 기념물의 역사' 전시회를 개막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할린 주 문화기록부 보도부에서 전했다.

두 박물관의 공동 프로젝트는 종교적 업적으로 유명한 러

시아 성인들의 그림을 전시했다. 작품들은 16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제작된 러시아 교회의 예술 작품들로 성화상 외에 응용 예술 조각 및 판화도 전시됐다.

개막식에 알렉세이 벨리크 사할린주 지사 대행, 유즈노사할린스크 및 쿠릴열도 대교구 행정관 니카노르 경, 안드레이 루블료브 명칭중앙 고대 러시아 문화 및 예술 박물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открыли выставку икон из собрания музея Андрея Рублев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состоялось открытие выставки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святости. Памятники XVI – начала XX века из собраний музея имени Андрея Рублева и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вместный проект двух музеев представляет образы русских святых, прославившихся своими духовными подвигами. Это произведения русского церковного искусства, созданные в период с XVI по XX век. Помимо икон в экспозиции присутствуют гравюры и предметы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Н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управляющи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и Курильской епархией владыка Никанор, представители центрального музея древне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имени Андрея Рублева.

유즈노사할린스크, 국제 요가의 날 기념식 개최

6월 25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문화 및 휴식공원에서 사할린 요가 페스티벌이 열린다. 주최측에서 모든 수준의 참가자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지역 체육부가 밝혔다.

국제 요가의 날에 맞춰 진행되는 이 스포츠 이벤트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공원에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에는 초보자 수업, 호흡 연습, 여성 요가, SUP 요가, 다이내믹 명상, 지압 테라피 및 일반 수업이 포함된다. 강의, 마스터 클래스,

선물 추천도 준비되어 있다.

축제는 음향 치유 및 프리 댄스 연습으로 마무리된다. 모든 수업은 사할린 요가 스튜디오의 숙련된 트레이너가 진행한다. 참가자는 요가 또는 피트니스 매트를 지참하고 편안한 운동복을 착용해야 한다.

일부 실습 및 선물 추천을 위해 필요한 사전 등록은 링크 <https://forms.gle/TRzGGcnaHgKXsBFK9>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ень йоги отпраздную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25 июня пройдет Сахалинский фестиваль йоги.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или насыщенную программу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с любым уровнем подготовки, сообщи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спорта.

Спортивный праздник, приуроченный к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дню йоги, будет идти в парке с 10:00 до 20:00. В программе – занятия для начинающих, практика по дыханию, йога для женщин, сап-йога, динамическая медитация, гвоздестояние, а также общие занятия. Также сахалинцев ждут лекции, мастер-классы, розыгрыш подарков.

Завершат фестиваль практики исцеления звуком и свободного танца. Все занятия ведут опытные тренеры островных йога-студий.

Участникам необходимо взять с собой коврик для йоги или фитнеса и быть в удобной спортивной одежде.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регистрация, которая требуется для участия в некоторых практиках и розыгрыше подарков, открыта по ссылке <http://forms.gle/TRzGGcnaHgKXsBFK9>.

사할린주, 러시아 내 가구 소득 기준 7위를 차지

러시아 통신사 '노보스티' 전문가들이 2022년 러시아의 인구 소득별 지역 순위를 매겼다. 사할린 주는 고정 식품 패키지 비용 대비 중위 소득 비율이 2.28로 7위를 차지했다. 실업률 또한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8면에 계속)

'불꽃놀이' 타악기 팀, '러시아 대학생 봄' 전국 축제에서 그랑프리 수상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의 '불꽃놀이'타악기 팀(지도 신 율리아 교사)이 '러시아 대학생 봄'축제 악기연주 부문에서 '환상'이란 모듬북 컴포지션으로 그랑프리(대상)를 수상했다고 전해졌다. 해마다 열리는 이 축제는 올해는 한티만시이스크에서 6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전국에서 지역예선을 거쳐 우승한 참가자 2000여명이 이 대규모 행사를 찾았다.

'불꽃놀이'팀은 대상뿐 아니라 제3회 재능있는 청소년 지원 국가상도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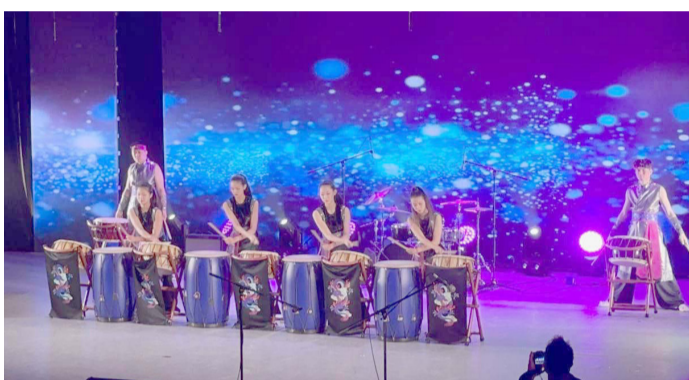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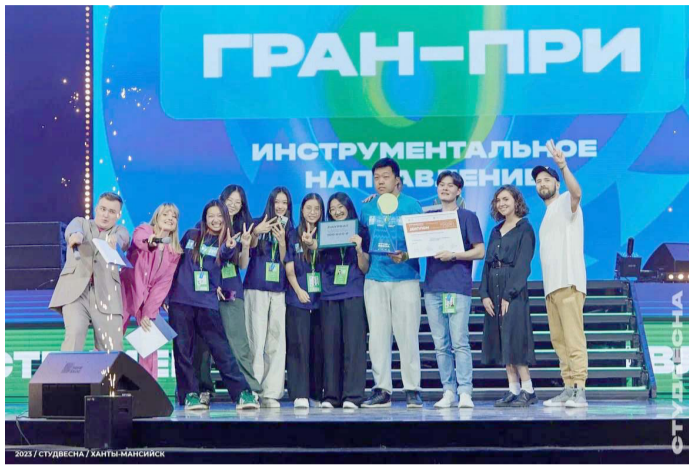
«저희들을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지지를 느꼈습니다. 우리 공연이 관객들의 대한영을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우리 공연을 직접 보실 수 있었고 이들에게 이런 한국 모듬북 공연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자들을 앞설 수 있었고 대상을 받을 수 있었나 봐요.»라고 '불꽃놀이'팀의 일원인 신노미 학생이 소감을 나누었다.

또한 오리지널 장르에서는 '불꽃놀이'타악기팀과 '영블렛크루'브레이크댄스팀(지도 강 콘스탄틴)이 합동 공연 'The Only Move'로 1위를 차지했다. '영블렛크루'팀은 '거리춤'부문에서도 1등을 했다.

'에트노스'학교의 '고려'팀도 기악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 외 사할린 참가자들이 보컬부문, 아트부문, 미디어부문 등에서 1, 2등을 수상했고 여러 특별상도 받았다고 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전 러시아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밝고 재능있는 젊은이들이 사할린에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좋은 공연과 훌륭한 결과를 얻은 우리 예술가들에게 축하를 전합니다»라고 청소년청 드미트리 스메칼로브 청장이 말하였다.

XXXI (II) 전 러시아 축제 "러시아 대학생 봄" 폐막식은 러시아 청년 연합, 대통령 플랫폼 "러시아-기회의 나라"및 한티만시이스크



자치구 정부의 공동 프로젝트로 열린다고 전했다.

(본사 기자)

(사진: 주정부, '에트노스'학교 제공)

'기밀 해제 문서를 통해 본 사할린한인 학살사건' 강연회에 큰 관심

지난 6월 21일(수) 서울에 있는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지구촌동포연대(KIN)가 주최한 "기밀 해제 문서를 통해 본 사할린한인학살사건"을 주제로 강연회가 열려 큰 관심을 받았다. 연사로 발표한 사할린향토박물관의 진 율리아 박사는 1945년 8월에 많은 조선인이 학살된 카미시카와 미즈호 사건에 대해 소련 정보기관이 미공개로 보존하고 있던 재판 기록이 공개되었음과 공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자료의 의미 등을 소개했다. 또한 기록의 내용 분석으로 확인한 조선인 희생자의 규모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였으며, 우시로 촌에서 발생했던 일본인의 한인 살해사건 조사 기록을 최초로 공개했다.



편적으로 소개된 자료의 정본이 확인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공식적인 자료에 근거해 구체적인 조선인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각 사건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작업에 접근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평가하면서, 1945년 여름 시기에 사할린 한인 사회와

조선인들을 억누르던 일본 군국주의의 지배 구조를 밝히는 작업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이날 한국방송공사(KBS)에서 강연 내용을 취재하는 등 언론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한국과 러시아 및 일본 각지에서 온 라인으로 강연회에 참여한 이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이들은 강연회 중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할린 한인 희생 사건이 도처에 있었음을 알렸고, 인도주의에 반하는 전쟁범죄 사건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러시아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무고한 희생에 대한 객관적인 향후 협력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과 이를 위해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사할린 동포의 역사를 밝히기 위한 조사와 기념사업이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고 주최측이 전했다.

(본사 기자)

2022년 사할린 주 인구 이동 수치

사할린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사할린 주로 들어온 이주민은 18,081명(지역 내 이주 포함)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 증가했다. 이 중 78% 이상이 근로 연령대, 8%가 근로 연령 이상, 약 14%가 15세 미만 아동이다. 들어온 이주민 중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 13% 적다.

새로운 거주지로의 이동은 직장과 관련된 이유가 44%(14세 이상 전체 응답자 중), 개인적 이유 및 가족적 이유 23%, 이전 거주지의 복귀 2%, 학업 2%, 기타 이유 29%로 나타났다.

총 이주민 수 중에는 지역 내 이동이 31%, 지역 간 이동이 35%, 국제 이동이 34%를 차지했다. 이주민의 대부분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47%)에 거주하고 있다.

사할린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러시아 국민(지역 내 이주 제외)은 극동연방지구(러시

아 지역에서 사할린에 들어오는 전체 인원의 30%)출신이며, 시베리아연방지구 출신이 19%, 중앙연방지구 출신이 16%이다.

러시아의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은 계속되고 있다. 2022년 사할린을 떠난 인구는 22,112명(지역 내 이주 포함)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2% 증가했다. 떠난 사람들 중 78%는 근로 연령대, 8%는 근로 연령 이상, 14%는 어린이였다. 떠난 사람들 중 여성은 남성보다 26% 더 적었다.

거주지를 변경한 이유는 개인 및 가족적 사유가 20%(14세 이상), 직장 관련 사유가 6%, 이전 거주지의 복귀가 2%, 학업 관련 사유가 5%, 기타 사유가 67%였다.

2022년 사할린주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유입된 러시아 영토로는 극동연방지구(지역 내 이주 제외)가 28%로 가장 많았고, 중앙연방지구 17%, 시베리아연방지구 15%,

남부연방지구가 14%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지역의 이주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국제 이주이다.

사할린주는 전통적으로 독립국가연합 국가들과 가장 강력한 이주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국제 이주민의 94%가 독립국가연합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다. 키르기스스탄 국적자가 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타지키스탄 국적자가 9%, 아르메니아 국적자가 7%로 그 뒤를 이었다.

2022년, 사할린으로 이주한 독립국가연합 이외 국가 출신 이민자는 작년보다 51% 감소했으며, 세르비아 출신 17%, 영국 출신 14%, 인도 출신 9%가 포함되었다.

사할린주의 사회, 인구 통계, 환경 및 기타 사회 과정에 대한 정보는 사할린주 공식 웹사이트(65.rosstat.gov.ru)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고향 / 정지용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뇨.

산땀이 알을 품고
뼈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머언 항구(港口)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뉘 끝에 홀로 오르니
흰 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

"고향이 어디세요? 요즘 이렇게 묻는 분들 계시나요? 물론 없으시겠죠. 증권사 계좌 트는 데에도 현주소 부르면 그만이고, 아들 녀석 고등학교에 입학 서류 제출할 때조차 호적등본, 주민등록 원초본 이런 걸 제출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이런 요즈음, 이런 세상에 흐음, 고향이랑?"



고향이라고 칭하면 어쩐지 시골 기슭 구부러진 길을 한참 오르다, 허리에 손 올린 채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겁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정자도 나오고 당산나무도 보이겠죠. 런닝셔츠만 입으신 채 부채질하는 어르신들이며, 집 앞 대문마다 빨간 고추를 말리고 있는 장면이 떠오르겠지요. 이런 게 고향에 가까운 이미지가 아닐는지. 아니면 손바닥만한 가지미를 가을 벌에 잔뜩 넣어놓은 그런 어촌 분위기. 고향을 떠올리면 어쩐지 이렇게 합니다. '회환'이란 단어를 짚어낸 채 낡은 구두를 신고 들어서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어둑한 골목 어딘가, 때아닌 귀뚜라미 소리도 울리고, 그 누구의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고요한 이미지. 제게 고향에 대한 이미지는 이렇듯 어렵듯이 지어낸 합성 이미지처럼 어수선하기만 하네요.

제 경우만 봐도 전라북도 부안 출생이긴 하지만, 온 가족이 바로 서울로 올라온 케이스라 고향에 대한 이미지, 이러면 딱히 시골 마을을 떠올리기 힘든 경우거든요. 뭐 기억에 없을 테니. 이를테면 아스팔트 세대. 오히려 제 유년 시절의 기억은 딱지치기하고 구슬치기하던 서울 변두리의 동네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행복했지요. 동네 길목에서 숨바꼭질도 하고, 대충 인원 맞춰 축구하던 그런 풍경들 말이지요. 행복했던 기억, 그 언저리 어딘가가 그렇다면 고향인 건가?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신가요?"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사할린 주, 일주일간 200여 명이 진드기에 물려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사할린 주 주민 205 명이 진드기에 물렸다고 지역 소비자 권리보호감독청 보도부가 전했다.

코르사코브, 우글레고르스크, 흠스크, 마카로브, 포로나이스크, 아니와,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구역 및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이 진드기에 물린 것에 대해 의료기관에 문의했다.

해당 기관에서는 한 주 동안 통화 수가 42.1% 증가했다고 전했다.

섬지역들에서는 진드기 바이러스성 뇌염에 대한 백신 예방 접종이 계속되고 있다. 6월 1일 현재 3,408명이 백신을 접종받았으며, 이 중 1,800명이 어린이이다. 850명이 재접종을 받았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нига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опубликована на Литрес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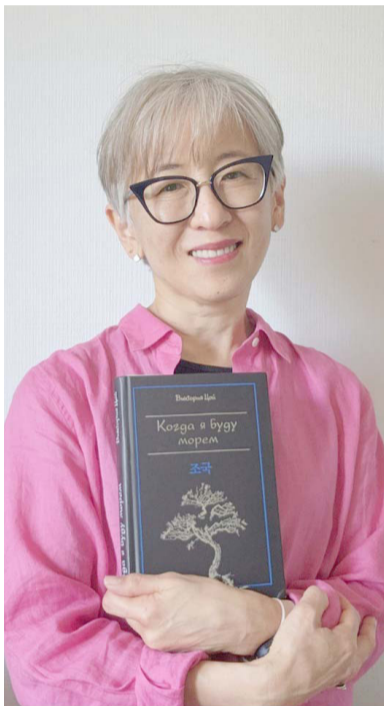
Роман «Когда я буду морем» сахалин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ы Цой Виктории теперь можно скачать на Литресе - крупнейшем российском сервисе электронных книг.

Эта книга всколыхнула сахалинскую корейскую диаспору, и небольшой тираж был раскуплен в считанные недели. Ее покупали в подарок родным и друзьям, и даже отправляли в другие страны – Казахстан, Узбекистан,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ю.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е оставила равнодушными читателей. Те, кто не смог купить бумажную версию, теперь могут ее скачать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Заходите на Litres.ru, набирайте название «Когда я буду морем» или имя автора – Цой Виктори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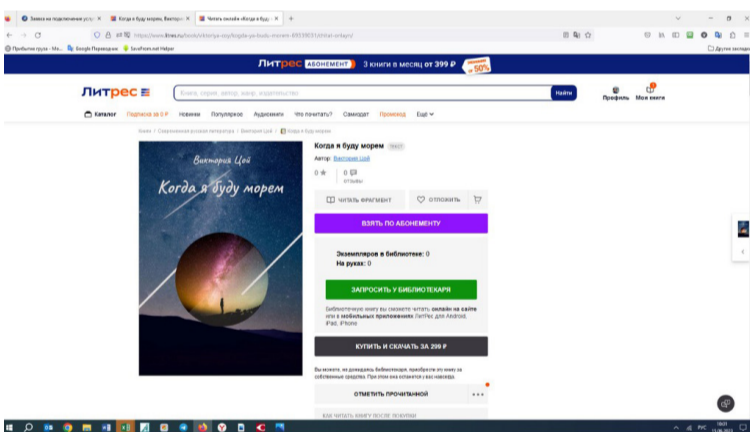
Скачивайте, читайте, пересылайте роман родным и друзьям!

А еще пишите отзывы, чем больше отзывов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о, тем больше вероятность переиздания романа Викторией Цой в бумажном варианте.



Без читателей книга - всего лишь черные знаки на белом листе.

Спасибо вам, прекрасные читатели!



Аня

Вика, привет! Читала вашу книгу - она необыкновенная! Только что прочитала главу «Заковка» и на том месте, где сын хоронит свою маму Ок Суль, я расплакалась - я вдруг поняла смысл названия «Когда я стану морем»...

В РК начнут действовать цифровые удостоверения личности

Цифровые удостоверения личности, которые станут полноценным аналогом действующих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пластиковых документов, вступят в действие в РК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Поправки в Закон об удостоверении личности приняты 20 июня кабинетом министров. После утверждени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в течение года последует период подготовки новой системы цифровых удостоверений, которые будут храниться в смартфонах. Цифровой аналог документа можно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в режимах онлайн и офлайн. Он будет применяться для подтверждения возраста, при выдаче документов в органах власти, открытии банковского счёта или получении кредита. Действующи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цифровые удостоверения личности нельзя использовать в финансовых учреждениях.

KBS World

Сахалинские барабанщики взяли Гран-при на «Российской студенческой весне»

Высшую награду завоевали воспитанники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Этнос» –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их удар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Пулькотнори». Фестиваль «Российская студенческая весна» состоялся в Ханты-Мансийске. Масштаб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объединило 2 тысячи конкурсантов со всей страны,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ий коллектив стал обладателем Гран-при фестиваля и победителем III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емии поддержки талантливой молодежи «Российская студенческая весна» в инструменталь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Ребята одержали победу, выступив с композицией «Хвансан».

– Хочу сказать спасибо всем, кто за нас болел. Мы чувствовали вашу поддержку. Считаю, что могли выступить лучше. Но мы стали первыми, а наше выступление вызвало фурор в зале. Зрители до этого не видели такого живую. Поэтому мы были вне конкуренции, наши труды были вознаграждены, – поделилась Син Ном Ми, участница ансамбля корейских удар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Пулькотнори»

Обладателями высоких наград фестиваля стали и другие участники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 призовые места в вокаль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заняли Арина Першина, Дарья Смирнова, Алина Лисина и группа «СИДО».

– Мы – единственные, кто живьем исполнял рок. Выступили отлично, порвали зал. Такой поддержки, как у нас, не было ни у кого. Диплом первой степени, в итоге, у нашего коллектива. Очень понравилась организация фестиваля, их культура, 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и закрытия поразили масштабами и красотой, – поделилась солистка группы «СИДО» Дарья Смирнова.

Победители инструментальн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от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дуэт Сосна и коллектив «Корё».

В оригинальном жанре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брали «Пулькотнори» и «Янг Буллет крю» с синтез-номером «Единственный ход». Коллектив «Весна Продакшн СММ» взял приз второй степени в медий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ероника Корниенко отличилась в номинации «Арт», получив приз первой степени. Музыкальный клип от Яны Ромашовой взял специальный приз



«За создание яркого образа», а юмористический ролик Марии Плиевой в направлении «Видео» диплом первой степени.

Лаборатория моды «А. Кляус» отмечена спецпризом «Костюм года». Платье его коллекции забрали в музей моды Российской студенческой весны. В театраль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творче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Лица» с постановкой «В моём доме живёт Дед Мороз» награждено специальным призом «З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е преобразование предметного мира».

В номинации «Уличные танцы» (брейк-данс) группа «Янг Буллет крю» отмечена призом первой степени.

– Ребята показали, что у нас на Сахалине есть яркие и талантливые молодые люди, которые могут составить конкуренцию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уровне. Поздравляю наших артистов с хорошим выступлением и отличным результатом, – отметил Дмитрий Смекалов, руководи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ёжи.

Отметим,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закрытия XXXI (II)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Российская студенческая весна» – совместный проект Российского Союза Молодежи, президентской платформы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Ханты-Мансийского автономного округа-Югры.

Не дождалось воссоединения

Сеул, 19 июня – ИА РУСКОР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примерно 16 000 пожилых южнокорейцев умерли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в ожидании воссоединения с членами семей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которые были разлучены Корейской войной 1950-1953 годов, показали данные.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воссоединению, с августа 2018 года, когда проводилось последне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 воссоединению семей лицом к лицу, ежегодно умирало от 3400 до 3700 человек, при этом, по оценкам, общее число смертей составило около 16 000.

Со времени первого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в 2000 году две Кореи провели 21 раунд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воссоединению, но они были приостановлены на фоне ухудшения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после саммита без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Севером и США в

Ханое в начале 2019 года.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конец прошлого месяца, из 133 680 заявителей, которы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сь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для воссоединения семей, умерло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92 534 человека, что составляет 69,2 процента.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среди 41 146 оставшихся в живых заявителей, 31,1 процента составляют люди в возрасте 90 лет и старше, а на лиц в возрасте 80 лет и старше приходится 67 процентов,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Проблема разлученных семей становится все более актуальной, поскольку все больше пожилых людей уходят из жизни, не имея возможности встретиться со своими близкими на Севере из-за нежелания режима затворничества проводить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воссоединению семей.

Лучшее в Азии место для отдыха

Сеул, 19 июня – ИА РУСКОР

Американский журнал о путешествиях Global Traveler назвал Сеул лучшим местом для отдыха в Азии, сообщило город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Журнал проводил опрос своих читателей с декабря по апрель, предлагая им выбрать лучшее место для 11-й ежегодной премии Leisure Lifestyle Awards по многим категориям, включая отдых, роскошь и стиль жизни, согласно веб-сайту журнала.

«С резким ростом узнаваемости K-content популярность развлекательного туризма в Сеуле также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по всему миру», — сообщило город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 «Мы в полной мере воспользуемся этой возможностью, чтобы привлечь больше туристов в Сеу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города заявило,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удар по туризму из-за продолжительной пандемии COVID-19, оно продвигало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Сеула за рубежом вместе со своим почетным послом и мегазвездой K-pop BTS.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 также открыт тур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й для пеших прогулок, у входа на гору Бухан, а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 открыть второй центр вблизи гор Инванг и Бугак.

Цены в общепите выросли за пять лет на 28,4%

Цены на восемь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блюд в заведениях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выросли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в среднем на 28,4%.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правам потребителей, в мае этого года кимпап, роллы из риса и овощей, были на 46% дорож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маем 2018 года. Чачжанмён, лапша с китайской соевой пастой, подорожала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на 40,5%. Средние цены на холодную лапшу нэнмён увеличились на 16,1%, а на варёный рис с овощами пибимпап - на 30,9%.

KBS World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Сеуле прошло масштаб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в рамках BTS FESTA

С 12 по 25 июня в РК проходит фестиваль, посвящённый десятилетию дебюта группы BTS. Его девиз - «BTS представлены повсюду». Одно из наиболее масштаб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состоялось 17 июня в сеульском парке Ёйдо на берегу реки Ханган. В нё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400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120 тысяч иностранцев. Около 3 тысяч фанатов группы, выигравших билеты в лотерею, находились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на площадке перед сценой, а остальные смотрели шоу под названием «Это Ким Нам Чжун в 5 часов вечера» на большом экране, установленном поблизости. Парк Ёйдо превратился в фиолетовое море, поскольку он был заполнен фанатами BTS, одетыми в фиолетовые футболки. Это цвет группы BTS. Вечером 17 июня состоялся масштабный фейерверк, сопровождаемый песнями BTS. По данным продюсерского агентства BigHit Music, более полутора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по всему миру смотрели трансляцию фейерверка в реальном времени с помощью стриминговых платформ, таких как TikTok и YouTube. Специальное ток-шоу с участием RM, лидера группы BTS, которое предшествовало фейерверку, привлекло около миллиона зрителей.

РК сокращает импорт японских морепродуктов

По данным тамож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 мае этого года РК импортировала 2.129 тонн японских морепродуктов. Это на 30,6% мен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окращение импорта вызвано растущими опасениями по поводу безопасности японских морепродуктов в связи с началом реализации японского плана сброса загрязнённой воды с АЭС «Фукусима». Как заявил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замминистра морского и ры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К Сон Сан Гын, запрет на импорт морепродуктов из восьми японских префектур, прилегающих к префектуре Фукусима, будет сохранён до тех пор, пока там встречается рыба с высоким содержанием радиоактивных элементов.

Рабочая группа займётся решением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й проблемы

Комитет по проблемам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и и старения общества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К сформировал рабочую группу по планированию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 этом возникла из-за того, что суммарный коэффициент рождаемости, то есть, среднее количество детей, рождаемых женщиной в течение жизни, достиг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екордно низкого уровня 0,78. При этом уровень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а, при котором население РК оставалось бы на стабильном уровне в 51 млн человек, должен составить 2,1. В 2025 году страна приблизится к эпохе сверхстарого общества, когда до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в возрасте 65 лет и старше достигает 20%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В состав новой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войду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митета по проблемам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и и старения общества, министерства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а также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Минюст РК ускорит паспортный контроль в аэропорту Инчхон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РК планирует ускорить процедуру паспортного контроля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аэропорту Инчхон. Как показала проверка, при вылете из страны особых проблем не возникает, так как пассажиры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уют автоматическую систему контроля. Однако в залах прилёта периодически возникают очереди на паспортный контроль. Особенно сложная ситуация складывается с 11:00 до 17:00. В этот период будет максимально увеличено число сотрудников паспортного контроля. Кроме того, сотрудники, работающие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гражданами, будут обслуживать иностранцев. При этом иностранцев с долгосрочными визами призывают использовать автоматическую систему контроля. С января по апрель текущего года аэропорт Инчхон обслужил 14 млн 200 тыс. пассажиров. Это почти в 7,5 раз бол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и 64% показателя того же периода 2019 года.

К 2025 году на горе Намсан будет построена канатная дорога

К 2025 году на горе Намсан в центре Сеула будет построена новая канатная дорога. Её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редусмотрено программой укрепления турист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лицы. На горе Намсан, которую ежегодно посещают около 8 млн человек, обитают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животные и растения. Кроме того, она является местом отдыха для горожан. Со смотровой площадки на вершине башни N Seoul открывается великолепный вид на город. 25 десятиместных полувагонов смогут перевезти более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в час.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эрии Сеула, дорога не будет наносить ущерба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е. Существующая ныне канатная дорога, которая эксплуатируется с 1962 года, обладает низкой пропускной способностью.

(RKI)

КНДР пообещала создать более мощные виды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назвав и свою "главную неудачу"

В КНДР завершился Пленум ЦК партии. Руководство КНДР назвало недавнюю неудачу с запуском военного спутника самым крупным своим провалом. При этом в Пхеньяне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они намерены продолжать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ть сферу освоения космоса, а потому стоит ожидать новых запусков.

США и их союзникам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ообещала создание собственных "новых более мощных видов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осудив попытки Вашингтона добиться "мирового доминирования". В Южной Корее скептически оценили итоги заседания, посчитав, что КНДР, по сути, признала отсутствие каких-либо собственных достижений за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едущие СМИ КНДР сообщили основные результаты состоявшегося с 16 по 18 июня в Пхеньяне расширенного Пленума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ЦК)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ТПК), где, как анонсировалось, планировали выработать новую стратегию действий КНДР "в условиях изменившейся мировой обстановк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партийное руководство не стало обходиться молчанием неудачную попытку запуска военного спутника, которая состоялась 31 мая и завершилась падением ракеты-носителя с нагрузкой в водах Желтого моря. Это было названо "самой серьезной неудачей". Ответственных за запуск подвергли достаточно жесткой критике, дав указание "самым тщательным образом провести анализ причин провала запуска и извлечь из него урок с тем, чтобы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успешно вывести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й аппарат на орбиту".

В КНДР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они продолжат программу освоения космоса, а конкретно вывод военного спутника определен в качестве главного ближайшего приоритета. Хотя конкретных сроков повторного старта обозначено не было, но можно быть уверенным,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овторит попытку, как только будет готова.

По поводу международной ситуации были критически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ны попытки США и их союзников добиться мирового господства, нагнетание напряжен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На пленуме решили ответить на это усилением собственных "сил самообороны", пообещав, что "продолжат придерживаться курса на развитие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и "увеличат производство мощных видов ядерных вооружений". Одновременно было заявлено о цели по укреплению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друг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которые проводят в отношении Пхеньяна дружественную политику.

Была затронута тема и экономики: на пленуме подвели итоги работы в первом полугодии, упомянув о новых строительных проектах КНДР, а также признав "определенные трудности и недостатки". В качестве ближайших приоритетных задач были выделены увеличение объема производства зерновых,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домов дл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а также "эпохальные меры по развитию образования". Была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т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более строгого контроля за партийной дисциплиной.

Достаточно необычным было то, что, хотя на Пленуме ЦК ТПК лично присутствовал лидер страны Ким Чен Ын, он не выступил с речью.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об этом официальные СМИ КНДР ничего не сказали.

В Сеуле близкие к правительству Южной Кореи эксперты, а также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достаточно низко оценили итоги заседания, придя к выводу, что у КНДР попросту не оказалось каких-либо заметных успехов за

прошедшие полгода. По мнению южан, пленум был перенесен на более поздние сроки из-за запуска спутника, который хотели представить самым главным достижением, но это, наоборот, обернулось самой большой неудачей.

"В начале этого года КНДР заявляла о том, что смогла преодолеть экономическую нестабильность, повысила темп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но теперь вынуждена говорить о неудачах, ошибках, что, как мы считаем, демонстрирует их признание невозможности достичь поставленных ранее целей развития", - заявил в беседе с журналистами офи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ъеди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у Бён Сам. По этой же причине, как считает чиновник, Ким Чен Ын отказался от речи, что было весьма необычно. До этого на пленумах ЦК ТПК Ким всегда делал личные заявления и доклады.

Отмечено также, что скорее всего Пхеньяну будет не так-то просто повторить попытку вывода спутника на орбиту. "В публикациях по итогам Пленума ЦК ТПК сказано, что техни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при запуске имели отношение к без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официальных лиц, занимавшихся стартом. В этой связи, как мне кажется,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повторная попытка будет отложена", - отметил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Института проблем объединения РК Хон Мин.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было высказано предположение, что роль и масштабы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космического агентства скорее всего будут увеличены, учитывая неоднократные повторы в заявлениях намерений развивать эту отрасль.

Экспертов также привлекли два весьма значимых кадровых "возвращения из небытия". На ответственные посты вновь были назначены два политика, которые до этого были в высших эшелонах власти, но потом по тем или иным причинам были сняты с постов. В Южной Корее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братили внимание на возвращение военного "ястреба" Ким Ён Чхольа. По мнению Сеула, именно он стоит за потопление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корвета "Чхонан" в 2010 г. Он же играл ключевую роль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в 2018-2019 гг. во время переговоров с США и Южной Кореей. Ким Ён Чхоль, в частности, согласовывал детали и повестку встреч Ким Чен Ына с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часто общаясь с госсекретарем Майком Помпео. Однако после провала диалога с Вашингтоном Кима стали задвигать на второй план, лишив к 2021 г.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х постов. Теперь он вновь оказался в составе кандидатов в члены Политбюро ЦК ТПК, курируя направл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 Сеулом и возглавляя Фронт объединения. По мнению южан, это может усилить склонность Пхеньяна действовать жестко и порой агрессивно в отношении Южной Кореи.

Кроме того, вернулся на высокие посты и снятый в середин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с должности министра экономики и секретаря ЦК ТПК О Су Ён. Он снова стал секретарем партии и опять работает в отделе, связанном с экономикой. "Возвращение О вероятнее всего объясняется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добиться каких-то успехов в экономике, тогда как после его ухода ничего особо значимого и хорошего с точки зрения КНДР не произошло. Похоже, что это попытка вернуть проверенного специалиста, дав ему шанс вновь проявить себя",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и это назначение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ъединения РК.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Память о прошлом стан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приоритетом

Сеул, 17 июня – ИА РУСКОР

Южная Корея официально запустила обновлен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ветеранов, демонстрируя свою новую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увековечиванию памяти тех, кто пожертвовал собой ради нации.

Повышение статуса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патриотов и ветеранов (MPVA) с предыдущего уровня подчинения до статуса полноцен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было среди 110 политических задач, решаем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Юн Сок Ёля, начатой в ма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в Седжоне, в 130 километрах к югу от Сеула, Пак Мин Сик, первый министр по делам ветеранов пр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на, вступил в должность, пообещав приложить усилия для лучше-

го почитан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героев и создания социального климата в их поддержку. Он возглавлял подразделение по подготовке к обновлению с мая прошлого года.

«Я приложу усилия к тому, чтобы министерство, которое только что сделало свой первый шаг вперед, работало успешно и чтобы патриотизм был укреплен как духовный фундамент и культура нации», — сказал он в своей инаугурационной речи.

Пак также сказал, что он постарается сделать почитание ветеранов и патриотов «основными ценностями» для «устойчивого будущего», а не просто вознаграждать жертвы и вклад за то, что произошло в прошлом.

Министр подтвердил, что его

министерство будет настаивать на плане создания нов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парка, подобн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му торговому центру в Вашингтоне, округ Колумбия, в центральном районе Сеула Йонсан, чтобы почтить память ветеранов войны и других патриотов.

На церемонии инаугурац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о около 300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Хан Дак Су,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Шин Бом Чхоль и иностранные дипломаты.

Обновле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даст больше полномочий министру, поскольку теперь он стал полноправным членом кабинета. По словам официальных лиц, число сотрудников также увеличится на 26 до 337 челове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явится «Бульвар Студентов»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архитекторы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разработали концепцию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территорий возле действующих учебных корпусов и общежитий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Новый облик получат фасады зданий, а также прилегающие территории, расположенные на улицах Ленина, Пограничной и Крюкова.

– Учитывая, что уже этим летом начн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ампуса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я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и существующие здания и территории пространства университета. Молодежи должно быть комфортно и приятно не только учиться, но и проводить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лючевая особенность разработанной архитекторами концепци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в том, чтобы сделать внешний облик как фасадов зданий университета, так и прилегающих территорий в едином стиле и интегрировать в городск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Обновления коснутся «студенческого квартала»: в квадрате между проспектом Победы и улицей Пограничная. Планируется преобразовать территорию не только с эстетическ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но и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между учебными корпусами и общежитиями было удобно передвигаться.

– Неподалеку от университетского общежития № 4 на улице Пограничной планиру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транспортно-пересадочного узла. То есть студенты, которые будут ездить на учебу на рельсобусах, например, из ближайших к Южно-Сахалинску городов – Корсакова, Долинска – тут же будут попадать в студенческий городок. А уже здесь будут созданы вело-пешеходные зоны и пространство для отдыха,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ный архитектор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Максим Ефанов.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а прилегающих к зданиям университета территориях проведут расчистку от бытового и строительного мусора, отремонтируют или заменят асфальтовое покрытие, проведут полную инвентаризацию деревьев и кустарников, демонтируют ветхие сооружения, а также существующие ограждения и заборы, которые создают преграды пешеходам. Перед рядом корпусов ограничат въезд автомобилей и сделают парковки там, где они не будут мешать.

На следующем этапе предстоит выполнить ремонт фасадов как учебных корпусов, так и общежитий. Возле всех строений планируется обустроить удобные зоны отдыха с лавочками, небольшие скверы с искусственным освещением и зелеными насаждениями.

Напомним, проект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ахалинТех» стал участником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по созданию в России сети кампусов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и получил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Возведение кампус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ртует в июле этого года и завершится в 2025-2026 годах.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будет построен на территории бывшего Дома офицеров. В его составе: учебный корпус, научно-лабораторный блок с технопарком, библиотека, зал собраний, общественно-делов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и оранжерея. На площадке в районе проспекта Победы строители возведут комплекс из трех девятиэтажных зданий – студенческий городок на 1500 человек.

Проект по созданию кампусов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Наука и университеты», реализуемого Минобрнауки России, который запущен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В.В. Путина.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зработают новые инвестпроекты в сфер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рыболовств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удут развивать глубокую переработку рыбы, производство марикультуры, выращивать семена овощей и производить удобрения. Отбор перспектив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прошел в рамках сессии «АГРОБИОТЕХ 2035» на площадк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академии им. К.А. Тимирязева.

Участниками экспертной сессии «АГРОБИОТЕХ 2035» стали более 200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числе экспертов –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институтов, специалисты в област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профильных российских министерств, Корпорации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а также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а и банковской сферы.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разработали актуальные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проекты дл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Каждая из 10 команд по своему направлению.

– Мы предлагаем несколько технологий,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из имеющихся в регион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и органических отходов производить удобрения. Это все даст мультипликативный эффект. В регион придут технологии, будут создан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продукция пойдет на внутренний рынок и на экспорт, а это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доход в бюджет области, – рас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группы компаний «Роснано» Иван Ожгихин.

В числе прорабатываемых проектов также производство семян, в том числе картофеля, которые можно будет экспортировать в соседние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выращивание цветов для поставок на рынок АТР, а также создание кластеров марикультуры – площадки по выра-

щиванию и переработке гребешков, трепанга и морского ежа планируется создавать на южных Курилах. Также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внедрение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мощностей для более глубокой переработки рыбы.

–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 это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й рынок, поэтому, безусловно, все, что мы делаем – делаем для людей. Наряду с представленными проектами одна из важнейших для нас задач – обеспечение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качественными продуктами по доступным ценам. Многие виды продукции производятся у нас в регионе, а что не производится, мы должны привезти с минимальными затратами и обеспечить их долгосрочное хранение с минимальными потерями. Поэтому один из важных проектов в этой связи – создание логи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над которым мы активно работаем,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Частью новой логистической цепочки станет агропромышленный парк, первые объекты которого на Сахалине введут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в ноябре этого года. Агропромышленный парк позволит решить одну из главных проблем островного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 нехватку складских мощностей для хранения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существующих помещений не отвечает современным стандартам.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одукция портится, появляется необходимость завозить овощи с материка. Так, в новом овощехранилище будет соблюдаться температурный режим 0-5 градусов, что позволит увеличить срок хранения овощей с 5-6 до 9 месяцев.

– Таких форумов на нашей площадке еще не было и его проведение – заслуга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Здесь собрались сотни человек – учен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Безусловно, мы готовы помочь в реализации в рамках своей компетенции и уверены, что проекты будут воплощены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ректор РГАУ МСХА им. К.А. Тимирязева Владимир Трухачев.

Как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уже в июле этого года озвученные проекты будут защищаться в Россельхозбанке, начнутся переговоры с инвесторами.

В столице Сахалина общегородской выпускной бал объединил сотни выпускников

В этом году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со школой прощаются почти полторы тысячи ребят. Праздник на стадионе «Космос»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им. Ю. А. Гагарина собрал большую часть из них.

Выпускников поздравили родители, педагог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Городской Думы. Удачи выпускникам пожелал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щук и вице-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митрий Хайбриев.

– Дорогие друзья, хочу обратиться к вам от имени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ы у нас – лучшие и самые успешные. Вами гордятся не только родные люди, но и вс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егодня вы отправляетесь во взрослую жизнь, полную новых открытий и свершений. Не сомневаюсь, вы обязательно достигнете целей, которые перед собой поставили. Желаю вам получить хоро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и связать свою жизнь с нашим регионом. Ваши навыки и умения обязательно будут востребованы здесь, дома. Успехов вам. Дерзайте и ничего не бойтесь. С праздником! – отметил Владимир Ющук.

– Уважаемые педагоги, родители и гости праздника! Уверен, вы еще долго будете вспоминать школьные годы с теплотой. Школа дала вам основу для будущего – необходимый запас знаний. Некоторые ребята показали высочайший уровень подготовки и сегодня получают награды. Ваши итоги – это результаты труда и стараний, это заслуга педагогов, которые вложили в вас много сил и внимания, ваших родителей, которые поддерживали и наставляли вас. Дорогие выпускники, верьте в себя, не бойтесь ставить амбициозные цели! У вас обязательно все получится! С праздником! – отметил вице-мэр Дмитрий Хайбриев.

По первым результатам ЕГЭ 11 южно-сахалинских выпускников набрали 100 баллов: трое по химии, семеро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и один по литературе.

В праздничный вечер ребята делились эмоциями и планами.

– Грусти пока нет, настроение отличное. Возможно, позже возникнет чувство ностальгии, а пока я рада, что с хорошими оценками окончила школу. Поступать планирую на музыкаль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в Москву. А сегодняшний вечер проведу в прекрасной компании своих друзей. Погуляем, повеселимся, – поделилась выпускница школы № 22 Мелисса Власова.

– Конечно, буду очень скучать по учителям, они у меня были прекрасные. С одноклассниками будем держать связь. Сегодня настроение у меня прекрасное, выпускное, экзамены сданы, поступать планирую в ДВФУ, направление – прикладная математика и информатика, – рассказал выпускник 11 класса школы № 3 Эрик Непряхин.

Вероника Гербст из школы № 6 готовится к поступлению в один из московских вузов.

– Хочу стать режиссером телевизионных программ и игрового кино. Рада, что сдала экзамены на отлично. Грусти нет, но буду скучать по одноклассникам, а также

по классному руководителю, она мне как вторая мама, – рассказала выпускница.

– Сегодня прекрасный, светлый праздник, которого долго ждали. Так радостно за детей, за родителей, за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Выпуск замечательный, горжусь каждым учеником. Буду очень скучать по детям, мы даже смеялись – давайте организуем новый 12А класс, – делится класс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11А гимназии № 2 Оксана Архипова.

В этот вечер 112 выпускник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кончивших год на «отлично» по всем предметам, были отмечены наградами. Их талантливым ребятам вручил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щук,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родской Дум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лег Логачев, вице-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митрий Хайбриев и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разова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ветлана Мирова.

По традиции приглашенные выпускники произнесли торжественную клятву. Трогательным моментом праздника стал традиционный для городского бала вальс выпускников.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должила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с приглашенными артистами. Финальным аккордом выпускного бала 2023 года станет фейерверк на озере Верхнем.

Отметим, что первый общегородской выпускной состоялся в 2016 году. Такой формат праздника школьники поддерживали и теперь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 ежегодная традиция.

В остальных районах торжественное вручение аттестатов состоится до конца июня. Всего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о школой в этом году простятся 3132 учащихся. Еще продолжается ЕГЭ, но уже известно, что 100 баллов на экзамене в основной период набрали 12 сахалинских выпускников –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литературе и химии.

Сахалинские студенческие отряды открыли трудовой сезон

Открытие летнего трудового семестра для молодежных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отрядов состоялось 14 июня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Трудовые путевки получили первые 250 студентов – это учащиеся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ще более 500 человек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риедут работать на остров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и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Дмитрий Сmealов поздравили студентов с открытием трудового сезона и вручили путевки 14 отрядам.

–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ы начали новую историю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Сахалина. Многие из вас смогли поработать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получ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знания и квалификации. Хочу сказать спасибо всем, кто поддерживает это движение,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В этом году студенты смогут попробовать себя в нов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Так, им предлагается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е города и развитии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Сохранились и прежние сферы деятельности – строительная, педагогическая, медицинская, отрасль рыбопереработки, нефтяная, горнодобывающая,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ая и сервисная отрасли. Студенты будут получать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 в каждой компании устанавливается свой уровень. К примеру, в рыбной отрасли за 2 месяца можно заработать до 170 тысяч рублей.

По словам студентов, работа в летний период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региона – это не только хороший заработок, но и прекрас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начать восхождение по карьерной лестнице. На островн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молодые люди могут завести знакомства, проявить себя и узнать, на что способны.

– Уже второй год работаю вожатой. Мне интересно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с детьми, для меня это колоссальный опыт. Благодаря студенческим отрядам я знаю, что проблем с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м у меня не будет, – рассказала студентка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искусств Анастасия Андрусенко.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 главный инженер ПАО «Сахалинэнерго» Павел Яковлев рассказал,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организация впервые принимает студентов к себе на работу.

– 52 учащихся будут трудоустроены на предприятия нашей организации. Это будет интересный совместный опыт – студенты получат возможность узнать, что такое энергетика изнутри. Мы приветствуем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и хотим, чтобы со временем ребята вернулись к нам, в островную энергетику, – подчеркнул Павел Яковлев.

Отметим, решение о создании молодежных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отряд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ня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егодня движение развивается при участии региональных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агентства по развитию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сахалинск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молодежной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Российские Студенческие Отряды» и ОГАУ «Сахалинский молодежный ресурсный центр».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문경새재아리랑과 사할린아리랑의 만남

올해 세 번째 '찾아가는 아리랑학교' 사할린 동포와 함께 문경새재아리랑의 저변 확대 및 대중화 위해 경기도 양주시 울정마을 방문

경북 문경시 '아리랑도시문경시민위원회'는 지난 11일 '아리랑도시 문경'을 알리고 '문경새재아리랑'의 저변 확대 및 대중화를 위해 아리랑도시문경시민위원회가 주관, 개최한 올해 세 번째 '찾아가는 아리랑학교'가 경기도 양주시 울정마을에서 열렸다.

아도위 회원 34명이 이른 아침 문경에서 버스로 3시간 반을 달려 이렇게 먼 곳 양주를 찾아가는 연유는 2014년 사할린 귀국 동포 101명(현재 90명)이 양주시에 새 둥지를 틀어 살고 있는 곳을 찾아가 디아스포라 아픔을 아리랑으로 풀어내고, 문경새재아리랑의 확산을 위함이었다. 울정마을 '양주시 사할린동포회'와는 이미 몇 차례 만남 인연이 있었으며 특히 2018년 '디아스포라 아리랑제'가 열렸을 때 아리랑고개 문경새재에서 아도위가 주관한 고유제를 함께 지냈던 적이 있어 더욱 반가운 만남이었다.

이날 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권경석 회장, 전 사할린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 양주시 사할린동포회 강상용 직전 회장, 카레이스키아리랑(카레이스키는 러시아어로 '한민족'을 의미)을 창작하신 김세르게이 작곡가, 국악신문 기미양 대표이사, 사할린아리랑합창단 최나타샤(최미분) 단장, 왕십리아리랑보존회 이해술 회장, 동두천아리랑보존회 유은서 회장, 의정부 전호열 아리랑 애호가께서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시고 축사 및 격려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먼저 이만유 위원장이 오늘 '양주시 사할린동포회'를 찾아와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는 아리랑학교'를 열게 되어 반갑고, 이 만남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며, 우리 문경새재아리랑이 역사가 오래되어 '근대 아리랑의 시원'이라 하면서도 정선, 진도, 밀양아리랑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순수 민간인들이 뭉쳐 문경새재아리랑을 보급, 전승시키기 위해, 지난 2017년 아도위를 창립, 아리랑학교 등 사업을 펼치고 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근래 인지도가 높아지고 문경새재아리랑을 주목하고 부르는 사람이 많아졌으며, 편곡하고, 여러 장르에서 활용되고 있어 가슴 뿌듯하다. 또, 오늘 아리랑학교가 끝날 때까지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며 즐거운 시간되시길 바란다는 요지의 인사말을 전했다.

그리고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권경석 회장은 조선시대 서민들과 왕이 마주 보면서 함께 부른 노래가 아리랑이고, 아리랑은 우리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노래라고 말씀하셨으며, 이어 국악신문사 기미양 대표이사는 아리랑도시문경시민위원회는 시민의 이름으로 아리랑 문화 운동을 하는 자발적 시민운동단체이라고 전했으며, 또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문경아리랑을 널리 알려오고 있다. 지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코로나아리랑'을 창작 발표하여 아리랑으로 코로나를 물리치자는 노래를 널리 알렸다고 칭찬의 말씀을 주셨고, 직전 사할린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은 사할린에 억류되어 돌아오지 못하는 2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하였으며, 오늘 이렇게 사할린 동포들을 위문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아도위에 감사하다고 했다. 그리고 전 사할린동포회 강상용 회장은 지금까지 양주시사할린동포회와 문경시민들과는 7번의 만남이 있었다고 하며 오늘 이렇게 먼 길을 찾아주시 아도위에 감사한다고 하였으며 사할린아리랑보존회 최나타샤 회장은 올해 '문경아리랑경창대회'에 참가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권경석 회장이 아리랑도시문경시민위원회 이만유 회장과 왕십리아리랑보존회 이해술 이사장에게 각각 감사장을 수여했다. 아도위가 받은 감사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아리랑의 보편 가치 실현에 힘써 오신 귀 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항 대중 상생정신으로 사할린과 사할린아리랑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음에 대해" 전 회원의 뜻으로 감사를 표했다.

이어, 다음은 신현국 문경시장(함광식 문화관광농업국장)과 아리랑도시문경시민위원회가 마련한 선물 전달식이 있었으며, 문경새재아리랑 전승자 송영철 옹에 대한 구술생애사 책 '문경새재아리랑 소리꾼 송영철과 만남'과 문경오미자 김, 문경오미자 와인, 아도위 문은자 부위원장이 직접 가마솥에 끓여서 만든 생강조청이 전달됐다.



아도위합창단 공연 사진



환영사를 하고 있는 전 양주시사할린동포회 강상용 회장 사진

특히, 이날 아도위 황동철 이사의 사회로 시작한 아리랑 학교는 식전행사로 '한두리국악단(단장 : 함수호)'의 여는 마당, 사물과 태평소(함수호 쇠, 유대상 설장고, 김원섭 북, 이성자 징, 김경숙 태평소) 공연이 있었으며, 이어서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활동했던 사할린 동포 2세 김세르게이 작곡가의 아코디언 연주에 맞추어서 사할린아리랑합창단(단장 : 최미분) 20명의 '사할린아리랑 합창'과 한두리국악단 반주로 아리랑도시문경시민위원회합창단(대표 : 박순자 사무국장)의 '여러 아리랑 부르기(본조아리랑, 홀로아리랑,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문경새재아리랑)' 축하 공연을 가졌다.

또한, 아도위합창단은 이어서 한두리국악단의 반주에 맞추어 아도위 창작곡인 이만유 작사 함수호 작곡 '코로나아리랑'과 권순애 작사 함수호 작곡 '풍년아리랑'공연이 있었으며 곧이어 왕십리아리랑보존회 이해술 회장과 회원들이 왕십리아리랑을 선보이고 이어서 동두천아리랑보존회 유은서 회장이 동두천아리랑을 불렀다.

특히, 이날 '문경새재아리랑 이야기'란 주제로 이만유 위원장이 아리랑은 어떤 노래인가?, 아리랑의 기원과 유래, 어원은 무엇일까?, '문경새재아리랑'은 우리 아리랑사에서 어떤 위치, 어떤 역할을 했을까?, 문경새재아리랑 변천사, 문경새재아리랑은 근대 아리랑의 시원이다. 문경새재는 아리랑고개라는 내용으로 강의하였으며 우리 아도위는 문경새재아리랑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아니 전 세계인들이 즐겨 부르는 그날까지 문경새재아리랑의 전도사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이춘자·전정남·안복수 위원의 지도로 '문경새재아리랑 배우기' 시간을 가졌으며, 안복수·이성자·김금옥 위원의 '다듬이 공연 및 체험', 광말득·신준식·조홍자 위원의 '하모니카 공연', 가야금 함수호, 해금 이기욱, 장고 김경숙 국악인의 '가야금 합주', 김영애·정행복 위원의 '신나는 가요 공연', 정송위·김옥화(후) 위원의 '벚노래', 전정남·김옥화(선)·박춘자 위원의 '우리 비나리', 사물놀이에는 쇠 함수호, 설장구 유대상, 북 김원섭, 징 이성자, 태평소 김경숙의 멋진 공연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 모두 함께하는 '한바탕 어울림'으로 마무리했다. 또, 이날 공연 총괄 지휘는 함수호 단장, 행사의 모든 기록(사진, 동영상)은 오석윤 감사가 수행했다.

이상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고 아도위가 준비한 떡과 수박, 오미자 와인 등과 사할린 동포께서 직접 구운 러시아식 빵과 차를 들며 뜻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포애를 나누다가 아쉬운 작별을 고하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한민국 아리랑사에 또 하나 새로운 역사를 쓴 보람으로 우리 아도위 위원들은 가슴 뿌듯하게 '아리랑도시 문경'으로 돌아왔다.

[신아일보] 문경/김병식 기자

전국러시아어교사교수협의회 창립

한국 내 러시아어 관련 교사·교수들의 모임 초대회장에 김진규 고려대 노어노문학과 교수와 박소윤 서연고 교사



한국 내 러시아어 관련 교사·교수들의 모임인 '전국러시아어교사교수협의회'가 지난 6월 10일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전국러시아어교사교수협의회)

한국 내 러시아어 관련 교사·교수들의 모임인 '전국러시아어교사교수협의회'가 지난 6월 10일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 협의회는 한국노어노문학회, 한국러시아문학회, 한국슬라브어학회,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와 전국 초·중·고등학교 러시아어 관련 교사들이 주축이 돼 설립됐다.

협의회 초대 공동회장으로는 김진규 고려대 노어노문학과 교수(교사 대표)와 박소윤 서연고 교사(교사 대표)가 선출됐다.

'전국러시아어교사교수협의회' 설립은 국내 고등학교 제2외국어교과가 중국어와 일본어에 과중하게 치우쳐 있고, 서양어 중에서도 러시아어의 비중이 극도로 낮아 편향이 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또한 최근 러시아어권 재외동포의 국내유입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관련 지식이 불충분한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한국인 학생들도 재외동포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교육현장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밀바탕이 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국내 러시아학 및 러시아어·문화 관련 교육 정책을 연구·제안하고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유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외동포 학생 비중이 높은 초중고 재학생들을 다중언어 구사자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적, 제도적, 정책적, 법률적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신문)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세계한인 모국 기여 사례' 모집

'세계한인 모국기여 현황 발표 세미나'에서 발표할 사례 모집 7월 14일까지 이메일로 접수

세계한인회총연합회(회장 심상만, 이하 세한총연)는 전 세계 한인회를 대상으로 '세계한인 모국 기여 사례'를 모집한다고 6월 15일 밝혔다.

이번 모국 기여 사례 모집은 세한총연이 오는 9월 21일 개최할 예정인 '세계한인 모국기여 현황 발표 세미나'에서 발표할 한인회의 공적을 찾기 위함이다.

모집 사례는 ▲독립과 건국 기여 ▲경제적 기여 ▲정치외교적 기여 ▲영사조력 기여 ▲사회문화적 기여 ▲기타 모국 위상을 높인 기여 등에 한인회가 함께하거나 참여한 활동이며, 복수 지원도 가능하다.

응모 방법은 오는 7월 14일까지 사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세한총연 이메일(info@waka2021.org)로 제출하면 된다.

세한총연은 "'세계한인 모국기여 현황 발표 세미나'는 세계 한인회가 모국의 독립과 건국, 산업화 및 민주화 과정에서 기여한 공적 과 공공외교 등 모국을 돕기 위한 각종 노력을 취합해 이를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재외동포들에게는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세계한인 모국 기여 현황 발표 세미나'와 사례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한총연 홈페이지(www.waka2021.org)를 참고하거나 전화(02-523-0336)로 문의하면 된다.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리아노보스티 전문가들은 다양한 러시아 지역 거주자의 소득을 분석하고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순위를 작성했다. 사할린 주는 7위를 차지했다. 사할린 주 평균 임금으로 볼 때 사할린 주민들은 세트 리스트가 포함된 식품 패키지를 두 개 (2.28) 이상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섬 지역의 실업률도 계산했다. 결과에 따르면 주민의 7%가 빈곤선 아래에 있다. 2022년 말에는 이 지표가 0.4포인트 하락했다.

해당 분야의 선두는 야말로-네네츠크 자치구와 네네츠크 자치구, 그리고 모스크바가 차지했다.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은 평균 2.5개 이상의 식품 패키지를 구입할 수 있다.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яла седьмое место в России по уровню доходов населения

Эксперты РИА «Новости» составили рейтинг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по доходам населения в 2022 год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яла седьмое место: отношение медианных доходов к стоимости фиксированного продуктового набора составляет 2,28. Уровень безработицы также сохраняется на одной из самых низких отметок.

Специалисты РИА «Новости»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ли доходы жителей в разны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и составили рейтинг на основании полученных данных.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яла седьмую позицию. Так, согласно уровню медиан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на островах, сахалинцы могут приобрести больше двух продуктовых наборов с установленным перечнем (2,28).

Ко всему прочему, эксперты посчитали уровень безработицы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Так, за чертой бедности находятся 7% жителей. По итогам 2022 года показатель снизился на 0,4 пункта.

Лидерами рейтинга стали Ямало-Ненецкий и Не-

нецкий автономные округа, а также Москва. Там жители в среднем могут приобрести больше 2,5 продуктового набора.

사할린 곰 번식기 시작

사할린의 곰들은 이미 번식기에 진입했는데 이 기간은 보통 7월 말, 8월 초까지 지속된다. 이에 대해 사할린 지역 임업 및 수렵청에서 전했다.

"곰은 사납고 이유 없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암수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특히 덩치 큰 수컷들은 이 기간 동안 더 공격적입니다. 곰들은 움직이는 대형 물체를 공격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관에서 전했다.

사할린 산림 관리원은 당분간 산림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말 것, 휴게소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말 것, 묘지에 음식물을 버리지 말 것, 곰 기피제를 소지할 것을 권장했다. 예를 들면 캔 타입 에어로졸이나 공압식 경적 등이 있다.

곰에게 위협을 받을 경우 112에 신고해야 한다.

У сахалинских медведей начался период гона

У медведей на Сахалине начался период гона, который, как правило, длится до конца июля – начала августа.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Агентство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Медведи во время гона злобны, раздражительны, склонны к неспровоцированным агрессивным действиям. Это касается животных обоего пола, но крупные самцы в этот период ведут себя особенно агрессивно. Они готовы атаковать любой крупный движущийся объект, и часто не ограничиваются демонстрациями, – рассказали в агентстве.

Сахалинские лесничие рекомендуют на время воздержаться от посещения лесного массива, не подкармливать животных, не оставлять пищевые отходы в местах отдыха и продукты на кладбищах, иметь при себе средства отпугивания медведей. Например, аэрозоль-

ные баллончики или пневматические сигналы-гудки.

При возникновении угрозы от медведей, необходимо сообщить об этом по номеру телефона 112.

사기꾼들이 거액의 자동 결제로 사할린 거주자를 협박하여 160만 루블리를 빼돌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한 연금자가 사기꾼에게 160만 루블리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사할린 주 내무부는 이 남성이 사기꾼들이 주장한 거액의 '자동 결제'가 되는 것을 막으려다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1955년생인 한 남성이 6월 14일에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6월 1일 신원 불명의 '은행 직원'으로부터 메시지를 통해 총 100만 루블리가 넘는 금액이 자동 결제 될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 다음 해당 인물은 저축 및 신용 자금을 예비 계좌로 이체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이 연금자는 자신에게 전송된 링크를 따라 문제의 계좌로 1,660,900루블리를 이체했다.

Мошенники напугали сахалинца огромными автоплатежами и выманили у него 1,6 млн рублей

Пенсионер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еревел мошенникам больше 1,6 млн рублей. Так мужчина пытался спасти свои сбережения от огромных «автоплатежей», о которых ему наврали аферисты, сообщили в УМВД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заявлением в полицию мужчина 1955 года рождения обратился 14 июня. Он рассказал, что 1 июня ему через мессенджер позвонила неизвестная «сотрудница банка» и сообщила, что на него оформлены автоплатежи на общую сумму более 1 млн рублей. Затем звонившая предложила перевести сбережения и кредитные средства на резервный счет для сохранности. Далее пенсионер перешел по ссылке, которую ему прислали, и перевел на указанные счета 1 660 900 рублей.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01 руб. 0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 (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